

#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

## 사회정의와 평등을 일구어온 여성과 소수자들의 역사와 담론

일시 • 2020년 2월 6~27일,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한국 사회에서 반차별 담론과 운동은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영향과 연대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기획한 이 강좌는 페미니즘과 반차별/차별철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함께 탐색하고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워온 페미니즘의 역사와 담론을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절실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의제도 여러분과 함께 탐색합니다. 모쪼록 반차별 투쟁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살펴보는 이 강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작지만 분명하게 기여하는 실천과 연대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 3강 진행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1강	2월 6일(목)	난민 혐오와 '인종주의' 페미니즘을 벗어나 김보명(부산대 사회학과) × 야스민(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2강	2월 13일(목)	'여성' 범주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에서 차별을 질문하기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박한희(SOGI법정책연구회)
3강	2월 20일(목)	<b>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디로 연결될 수 있을까</b> 송유진(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 몽(인권운동사랑방)
4강	2월 27일(목)	페미니즘 이슈로서 차별금지법 서영(유니브페미) ×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 이진희(장애여성공감)

# 3강.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디로 연결될 수 있을까<sup>1)</sup>

강의 · 송유진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s.eugene2012@gmail.com)

---

## ‘안전한 여성 공동체’라는 종착역에서 벗어나기 -탈코르셋과 ‘진정한 여성’ 범주의 문제

‘탈코르셋’ 혹은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간혹 너무 많은 말들이 덧붙여져 거대해진 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여성성,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페미니스트 정체성 등 탈코르셋을 가로지르는 주제들은 페미니즘 학술장 내에서 언제나 가장 문제적인 주제들이었고, 트랜스젠더의 ‘여성성’ 수행이라는 최근의 이슈와 엮이며 탈코르셋은 다시 한 번 논쟁의 맨 선두에 섰다.

이 글은 탈코르셋 운동을 둘러싼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분석이 소위 ‘래디컬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이들의 전체 운동(비혼·비연애운동, 검은 시위, 혜화역 불법촬영 반대 집회, 나아가 최근의 ‘젠더박살 페미니즘’까지)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짚고자 한다. 작년 5월 무렵 Fwd에 「‘탈코르셋’과 이분화된 몸의 서사: 더 많은 몸들에 대한 상상을 위하여」라는 글을 쓴 이후 탈코르셋 운동은 항상 나의 주된 고민 중 하나였고, 여성의 몸과 운동의 서사에 대한 고민은 최근의 구체적인 지형들과 만나면서 젠더론이 이해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물음과 ‘인증’을 통한 ‘진정한 페미니스트’ 정체성 만들기 기획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었다. 이 글은 그러한 고민들이 일부 반영된 결과물로,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논쟁이 반복해 온 익숙한 궤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 1.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

탈코르셋 운동을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좁은 의미로는 화장, 다이어트 등의 꾸밈 노동을 통해 신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여성적’이라 이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수행을 중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적인’ 말투와 걸음걸이, 앉는 자세, 사고방식 등 모든 것이 탈코르셋 운동의 논의에 포함되며, 이는 여성의 신체에 덧씌워져 있는 ‘여성성’이라는 기표 자체를 전복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학계 내·외의 관심은 여러 차례 확장되어 왔지만,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를 운동 분석의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탈코르셋 운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몇몇 시도들은 대체로 소수자 배제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소수자 배제’라는 포괄적인 비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에 의해 어떤 정치학이 발생하는지, 그 정치학이 운동 전체의 서사에 미치고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모든 운동은 특정한 인식 기반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운동의 서

---

1) 본 강좌를 위해 작성한 초고로 인용을 하실 때에는 저자와 상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를 소유한다. 이는 운동에 참여하는 운동 주체들의 인식과 필요,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긴밀한 상호영향을 미치며 구성되는 것으로, 따라서 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욕망과 지향점을 살피는 작업은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일 것이다.

여성의 몸, 꾸밈노동, 성적 대상화, 주체 되기, SNS 운동, 일상 속의 정치 등 탈코르셋 운동을 가로지르는 키워드는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관련 논의는 첫째로 대상화의 극복을 통한 주체 되기, 둘째로 여성의 몸을 통한 일상의 정치에 중점을 두어 전개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운동의 주체들은 남성의 시선과 욕망을 수용하는 ‘대상’이자 남성의 욕망을 얻기를 재욕망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기를 벗어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기를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투쟁의 주요한 수단이자 장(場)으로 삼는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의 몸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타인의 욕망과 억압에 저항하며 새로운 주체상을 그려나간다는 점에서 이는 물론 일상의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 2. ‘인증’과 ‘진정한 여성’ 범주의 정치학-탈코르셋 운동을 추동하는 기획들

이처럼 탈코르셋 운동은 주체 되기, 여성의 몸을 통한 정치 등등의 키워드를 통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존의 몇몇 분석들 역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며 탈코르셋 운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는 운동의 동학을 구성하는 일부에 대한 평가일 뿐, 대상화 극복과 탈-억압의 키워드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지금부터 운동의 핵심 동학에 집중하여, 탈코르셋 운동의 서사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추동하고 있는 기획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인증’을 통한 ‘진정한 페미니스트’ 범주 만들기

탈코르셋 운동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장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 상의 SNS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양상이 눈에 띄는데, 운동의 주체들은 #탈코르셋, #탈코르셋인증, #탈코르셋전시, #탈코르셋은해방입니다 등의 해시태그를 붙인 이미지를 업로드함으로써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sup>2)</sup>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단순히 해시태그를 통해 운동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상에서 해당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운동 주체들은 탈코르셋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담긴 글과 함께 ‘여성성’을 벗어던진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한다. 한 번의 업로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점점 더 ‘디폴트’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업로드하며, 이를 탈코르셋 ‘인증’ 혹은 ‘전시’의 행위로 명명한다. 때로는 탈코르셋 경험을 ‘인증’한다는 표현과 함께 탈코르셋 전후로 본인의 인식과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긴 글을 함께 게시하기도 한다.

‘인증’의 과정은 탈코르셋 운동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핵심적이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인증’의 행위를 통해 본인이 결격 사유 없는 커뮤니티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탈코르셋 운동에서의 ‘인증’ 또한 몇몇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본인이 운동의 정당한 구성원임을 증명받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규칙이란 대부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짧은 머리카락과 화장하지 않은 얼굴,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는 옷을 걸치지 않은 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인증’의 과정을 거쳐 운동의 주체들은 특정한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를 ‘진정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스타그램 상에서 ‘인증’ 절차를 거친 여성들이 실제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공통의 ‘진정한 페미니스트’ 정체성에 기반하여 연대의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진정한 페미니

2) 2020년 2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상에 #탈코르셋 해시태그는 1만 6천여개, #탈코르셋은해방입니다 해시태그는 1천 5백여개에 이른다. 물론 이를 곧 탈코르셋 운동의 크기라고 선불리 단언할 수는 없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탈코르셋 운동의 취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게시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트'가 되었다고 생각한 여성이 '인증'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돌아간 경우 재빨리 연대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인증' 절차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승인을 거쳐 진정한 운동의 주체를 가려내는 과정으로, 그 자체로 계속해서 새로운 검증의 기준들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더 많은 기준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더 많은 케이스들이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운동에 대한 논의는 '누구를 누락시킬 것인가'의 문제만을 집착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또 정해진 증명 절차를 거쳐야만 운동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는 비단 탈코르셋 운동에만 한정되는 특징은 아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모든 운동의 중심에 두고 이에 천착하는 경향은 탈코르셋 운동을 둘러싼 여타의 '래디컬' 운동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며, 이는 운동의 주체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만을 계속해서 되물으면서 비슷한 논쟁을 되풀이하도록 만든다.

## 2) '여성성'의 수행=여성억압?

SNS 상의 '인증' 절차가 그 자체로 누락대상의 목록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탈코르셋 운동의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 즉 여성이라는 젠더를 이해하는 방식은 '진정한 여성'이라는 범주를 구성하고 그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논쟁은 여성의 몸과 꾸밈이라는 이슈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전체 '래디컬' 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를 이해할 때,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여성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버틀러의 논의를 거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개념이 되었다고 여겨졌던 '젠더'는 최근의 맥락에서 다시금 가장 문제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젠더의 사회구성적이고 수행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던 기존의 이론과는 별개로<sup>3)</sup>, 젠더라는 개념 자체를 여성억압으로 치환하면서 이를 페미니즘이 해소해야만 하는 주요 모순으로 보는 흐름이 갑작스럽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젠더 정체성 자체를 가부장제 사회 하에서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형성되어 온 성 역할(sex role)로 이해하면서, 따라서 페미니즘이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sup>4)</sup> 이러한 주장은 '젠더'라는 개념이 페미니즘 학술사 내에서 다루어져 온 복합적인 맥락을 제거하면서 페미니즘 이론 전반, 특히 퀴어 이론을 허황되고 여성억압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한다.<sup>5)</sup>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여성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진정한 여성'과 그 밖의 적, 대표적으로 MTF 트랜스젠더 여성 간의 구분이다. 젠더 부정을 기본 입장으로 삼는 이들에게 있어 '여성적'인 실천을 하는(한다고 믿어지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성'이라는 이름의 억압을 강화하는 존재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위의 이해에 기반하여 다시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면, 운동은 단순히 꾸밈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덧씌워진 '여성성'이라는 억압적 기표를 전복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 운동의 주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부장제 하에서 유구하게 고통받아 온 '진정한 여성'들이며, 이 반대편에는 버틀러의 이론과 퀴어 이론, 그리고 트랜스젠더 개개인들이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대부분 쉐라 제프리스의 작업을 경유하고 있지만, 제프리스의 이론이 마침 시기적절하게 수입되어 현재와

3) 섹스와 젠더에 대한 페미니즘 논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마리 미콜라(2017), 『섹스와 젠더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 전기가오리.

4)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이화 여성주의 연합 Rad-E의 "Get the L Out in Korea" 선언문 중 일부.

"하나, 우리는 퀴어 공동체의 여성혐오적 행태를 비판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을 가부장제 하의 억압/피억압 계급으로 인식하며 젠더 정체성이란 타파해야 할 성역할로 본다. (...) 하나, 우리는 자매애에 기반해 여자 계급의 단결과 저항을 촉진하는 레즈비어니즘을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만을 위해 행동한다."

5)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2019), 「쉐라 제프리스의 『젠더는 해롭다』 출간에 부쳐」.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반대로 여성 범주를 확장하려는 일련의 욕망에 의해 제프리스의 이론이 시기적,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지금의 맥락에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젠더 개념을 의도적으로 곡해함으로써 ‘래디컬’ 운동의 주체들은 ‘진정한 여성’이라는 허상의 범주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균일하고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이들만이 모인 공동체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다.

### 3. 서사와 경험들 사이의 ‘간극’에 주목하기

위의 내용들은 탈코르셋 운동의 동학을 가로지르는 기획이자, 탈코르셋 운동이 속한 전체 ‘래디컬’ 운동을 구성하는 기획들 중의 일부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획들은 ‘안전한 여성 공동체 만들기’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안전함’이라는 가치는 최근 페미니즘 운동들의 중대한 목표이자 모든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여기서 ‘안전함’이라는 단어가 ‘균일함’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함’이라는 명목 아래 용인되는 것은 ‘진정한 여성’들의 이해관계에 벗어나지 않는 차이들일 뿐이며,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존재와 욕망들은 운동의 영역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운동의 진정한 주체와 그 주체의 자격을 따져야만 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를 누락시키기 위한 기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 하나로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운동의 단일한 서사와 현실 간에 존재하는 ‘간극’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탈코르셋 운동의 서사 속에서 개개인들은 경직된 기준의 충족을 통해서만 운동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변화와 경험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뒤로 미뤄진다. 그러나 “탈코르셋하고 가부장제 때려 부수자”, “여성성을 박살내자”와 같은 굵직한 당위들은 있는 그대로 개개인의 실천 속에 적용될 수 없으며, 실천의 과정 역시 저마다 다른 속도와 양상, 굴곡들을 지닌다. 이처럼 운동의 서사 혹은 당위와 개개인의 경험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며,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것은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상과 타협의 이야기들이다.

인증과 자격을 요구하는 서사, 동일한 기준과 정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운동의 서사에서 이러한 간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간극이 곧 운동의 실패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체들은 간극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묻는 작업을 통해 그동안 미뤄져 왔던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컨대 탈코르셋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sup>6)</sup>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서 탈피하려는 운동이 곧바로 무성(無性)과 무욕(無慾), 즉 욕망과 섹슈얼리티가 부재하는 상태로 직결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양한 층위의 욕망들이 운동 주체 개개인들의 서사에 어떤 형태로 엮여들어가는지, 이는 전체 운동의 방향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운동이 제시하는 단일하고 선형적인 서사와 이를 일상의 단위에서 실천하는 개개인들 간의 간극은 그 자체로 더 많은 주체들의 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그간 운동의 진정성 논의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요소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틈새이기도 하다. ‘진정한 여성’들이 모인 ‘안전한 여성 공동체 만들기’라는 앞뒤가 막힌 상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균열과 틈새, 간극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며, 운동의 서사는 여기에 기반하여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

6) 탈코르셋의 경험이 여성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는 곧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욕망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서술은 몇몇 인터뷰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이민경(2019),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이런 이야기들은 탈코르셋 운동의 굵직한 서사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운동의 부차적인 영향 정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3강.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디로 연결될 수 있을까

토론 • 몽 (인권운동사랑방)

이민경의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을 읽다보면 탈코한 자신을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난 일화가 등장한다. 잘 알려진 ‘작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여 지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공통된 탈코의 이미지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 공간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서로를 발견할 수 있었던 반가움, 그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해보게 된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에스닉 패션(이른바 ‘인도 페미’, ‘태국 페미’ 스타일)을 하고 어깨까지 늘어진 귀걸이를 한 여성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도 나 같은 페미니스트구나!’ 짐작해볼 수 있었다. 대도시인 서울 홍대의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공유했던 2000년대 초중반 대학가가 그 경험이 놓인 배경이었다. 이후에도 여성스럽지 않은 외모와 옷차림을 한 여성을 보면서 ‘혹시 레즈비언?’, 몸집이 건장하고 체모가 잘 정돈된 남성을 보면 ‘저 사람은 베어? 게이 아닐까?’ 홀로 추측하며 ‘게이다’를 돌리던 경험으로 이어졌다. 특정한 외모나 스타일, 행동양식은 내가 일상에서 동류를 추측하고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활동가의 생활반경 내에서 가질 수 있었던 기억임을 떠올려보면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지금은 카페나 서점에서 페미니스트로 짐작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 역시 최근 여성들의 일상적 차원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중화해온 탈코르셋 운동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개개인들이 조심스러운 탐색이나 지난한 만남 뒤가 아니라 가시적인 기표를 통해 ‘단박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엄청난 경험이었다. 당연히 이 배경에도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로 칭해진 국면이 존재하고, 탈코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페미니스트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반가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신을 의식적으로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진 지금, ‘여성들 내부의 차이’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도전이자 과제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듯하다.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라는 질문보다, 우리는 각자 ‘어떤’ 페미니스트인가를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의 가시화로 다가왔고, 우리가 이 질문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인지가 페미니즘 운동의 현재를 드러내는 것 같다.

랜웨어로 지칭되는 일부 탈코르셋 운동 주체들의 언설(주로 ‘트랜스젠더는 코르셋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후퇴시킨다’, ‘소녀들에게서 맨얼굴을 빼앗은 기성 여성/페미니스트들의 책임이다’ 등)을 ‘팩트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탈코르셋 운동을 둘러싼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송유진님의 접근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접근방식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 이후 계속된 탈코 논쟁은 인식 주체들의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 진정한 탈코야끼<sup>7)</sup> 정체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탈학습<sup>8)</sup>을 통해 사람이자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공통의 집단 감각을 형성하고 있다. 김수아와 이예슬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에서 이러한 공유된 그룹 내러티브(shared group level narrative)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와 정치적 효과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sup>9)</sup> 토론에서는 이러한 의식화와 집단 서사의 효과가 어떤 조건 속에서 차별의 구조에 함께 놓인 타자와의 연대 가능성, 규범의 상대성에 인식과 반차별 연대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7) 삭발한 두상을 ‘타코야끼’에 비유, 탈코르셋 한 여성을 지칭.

8) ‘꾸밈’으로 통칭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요한 여성성을 학습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9) 김수아, 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3).

“여성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가장 많은 질문, 왜 개인에게 ‘강요’하는가? : 개인화의 맥락과 효과

탈코르셋은 바디 포지티브라는 명목으로 자기 신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모든 여성들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장에 “왜 여성은 아름다워야 하느냐”고 반박한 가장 강렬한 움직임 (트위터 사용자)

2005년 처음으로 개최된 여성문화예술기획의 ‘빅우먼 패션쇼’를 떠올린다. 옷 사이즈가 XXL 이상인 학생, 주부, 직장인 등 1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런웨이에 모델로 섰다. 당시 빅우먼 패션쇼의 주최측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사람들이 여성의 몸과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바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몸 긍정주의)’를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탈코르셋 운동의 등장은 바로 몸 긍정주의를 통해 아름다움의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던 여성주의 한 흐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단순히 미의 기준을 넓히거나 다양화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여성다운 몸과 여성다운 행동양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우리 모두는 아름답다’ 혹은 ‘각자의 개성’,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 역시 (한편으로는 이미 특정한 종류의 ‘자기관리’가 사회구성원들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의 위계를 통해 코르셋을 유지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sup>10)</sup> 그렇기 때문에 코르셋을 입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벗어던지지 않는 이상, 여성 개개인 각자가 자신의 몸을 도구이자 운동의 장으로 삼으며 저항하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를 깨뜨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르셋이 제도/구조적 억압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관계와 문화, 그리고 여성 그 자신도 코르셋의 자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나여기 캠페인’ 시즌2 <2017 지금 여기 여성 차별>을 통해 수집된 사례(총 4,788건)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족, 교통이용, 학교, 일터, 대중매체, 친밀한 관계, 커뮤니티까지 전체 영역별에서 외모 평가와 여성적 역할을 강요하는 차별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애인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차별 경험 1위는 외모 평가/관리 강요였다. 학교, 직장, 미디어 등만이 ‘적’이 아니다. 여성성에 대한 강요는 ‘차별’로 인식되기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가능한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로 로 취급되기 쉽다. 또한 여성 스스로도 여성성의 재현·강화·재생산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탈코르셋의 운동의 배경이다.

대표적인 급진 페미니스트이면서 여성성에 대한 미시권력을 분석한 샌드라 리 바트키는 여성의 몸에 여성성을 새겨 넣는 훈육체계를 살피며 ‘훈육관들은 누구인가?’를 이미 질문한 바 있다. 그리고 여성성/꾸밈의 수행에서 훈육관은 모든 사람이지만 딱 집어 말하면 아무도 아니고, 훈육적 권력은 모든 곳에 있는 동시에 아무데도 없다고 말한다. 제2물결이 지목했던 여성성 훈육 체계의 익명성과 광범위함은 여성성이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질이자 자발적인 선택으로 설명해왔던 사회를 폭로하며, 여성의 주체성 역시 이러한 사회문화 속에서 구성되고 구조화되어 온 역사를 설명해주었다. 꾸밈이 여성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자체를 여성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거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가부장제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편재해있는 여성성 강요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속시키는 정치적 관계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부당함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하는 개인들의 연대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유명한 슬로건의 탄생 배경이다.)

10) 물론 나는 2005년 당시의 ‘빅우먼 패션쇼’는 미스코리아대회 같은 미인선발대회를 공중파에서 방송하던 당시의 한국사회 맥락에서 몸의 다양성 자체를 가시화 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양씨 같은 플러스사이즈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몸의 다양성’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이 두 맥락을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한다.

1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샌드라 리 바트키, 1988, “푸코,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근대화”, 윤희영 외, 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현재 한국사회의 '래디컬 페미니스트' 정체화 명칭은 60~70년대 급진 페미니스트 정치학과 관계가 없다거나 단순히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도 많고 나도 동의하지만, 제2물결 페미니즘의 언어가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탈코르셋 운동이 가정, 학교, 미디어와 같은 제도/기관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탈학습을 거부장제에 저항하는 개인의 강력한 일상적 실천으로서 제시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성성 강요에 순응하기보다 이러한 지배에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일상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이 일상적 실천이 여성주의 정치이자 운동으로 설명한다. ('남리남리한' 옷의 효율성을 문제제기하고, 여성성을 강화하는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로서 보이콧팅(boycotting)과 바이콧팅(buycotting)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등)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여성성을 새겨 넣는 사회에 저항하고 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좋아서 스스로 즐겁게 꾸미는 것'이라는 선택으로 설명하고 호소하거나 합리화하려는 여성들을 각성시키고 코르셋을 벗도록 실천하게 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로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운동의 전략이 '강요'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하지만 개인을 호명하는 일상의 정치는 코르셋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는 방향보다 특정한 탈(脫)코르셋의 규범을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입(入)하는 방향이 더 주요한 전략처럼 보인다. 코르셋이 사회문화적 억압임과 동시에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동의와 수행이라는 방식으로 강화된다는 인식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운동의 성격을 강조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의지와 실천으로 코르셋이라는 사회적 폭력의 절망을 직면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왜 탈코르셋을 개개인에게 '강요'하는가 라는 비판은 자신의 '꾸밈 자유와 선택'이라는 소비자 권리를 외치는 것 이라기보다, 탈코르셋 운동 내부의 '개인화' 전략 및 효과에 대한 성찰과 함께 억압과 차별 기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가깝다.<sup>12)</sup> 우리 모두가 코르셋이라는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운동에서 어떤 전략, 언어,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할까? 탈코르셋 운동의 개인화/의식화 전략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소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놓여 있는 차별의 구조와 그 작동을 살펴보게 한다.

사실 우리가 구조를 바꾸자. 라고 하면 언제든 절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고. 근데 적어도 남들은 이렇게 사회는 한참 멀었지만 적어도 나는 이걸로 인해서 나의 그런 억압들을 벗어 던지고 거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저한테 있었고. ... 일단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적어도 한 사람의 여성이라도 자기한테 느껴졌던 어떤 불합리한 그런 억압들이 이게 부당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용기를 얻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sup>13)</sup>

2017년 당시 민우회가 제안한 '세상을 바꾸는 사소한 성찰'은 나부터 해야 할 페미니즘 실천으로서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일주일 살아보기'를 실험하는 것이었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코르셋을 유지시키는 거대한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차별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코르셋을 재생산 하는 구조(키즈 코스메틱, 안티에이징과 같은 미용·성형산업의 끊임없는 확장, 핑크텍스를 노리는 패션산업, 달성 불가능한 이상적인 몸을 제시하는

12) 김애라는 탈코르셋 강요가 1)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 2) 온라인 공간에서 일종의 지배적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 3) 불안을 해소하고 연대를 확인하는 도구라는 맥락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다. 김애라, 2019, "탈코르셋, 갯레디위드미(#getreadywithme)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35(3) 참고.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는 자신은 빠르게 탈코르셋을 하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여성들은 내적/외적 탈코 모두 하지 않거나 사탕껍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또한 다른 여성들은 거부장제 사회에서 스스로 코르셋을 조이면서 운동의 결과라는 이익 혹은 '요행'을 바란다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램팸의 핵심 기제인 '피해자화', '진정한 피해자/페미니스트' 흐름과도 연관된다. 뷰티 유튜버 배리나씨의 탈코르셋 지지 영상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에 댓글이 막힌 이유에는 '왜 내적/외적 탈코르셋을 온전히 하지 않느냐'는 램팸들의 비난이 있었다.

13) 오혜진, 2019,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논문.

광고와 미디어, 사회적 규제와 처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를 개인의 인식과 실천만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차별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차별의 구조를 뒤바꾸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의 구조 앞에 모두가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자’라고 함께 약속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왜 이것을 공통의 억압으로 인식하는지, 공통의 차별을 경험하는/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그 차별을 작동시키는 ‘근본적인(radical)’ 권력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낯을 빼앗긴 모든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다.”**

**- 결국 나를 수밖에 없는 질문, ‘누구’의 페미니즘인가? : 규범의 상대성과 차별의 경험**

탈코르셋 이후 여성들은 제 적정 몸무게를 삶의 유지에 맞추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 같은 맥락에서 태주처럼 말랐던 여성은 이제야 남성들이 “살을 찌운다”고 말하던 용법대로 몸무게의 중량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기력, 정신력, 체력, 근력과 같이 기능을 뒷받침하는 ‘힘’의 관점에서 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4)</sup>

‘탈코=페미니스트’가 성립하는 이유는 탈코 자체가 페미니즘 의식화 과정이자 실천, 운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주의에는 반드시 ‘누구의’ 여성주의인가라는 논쟁이 동반된다. 송유진은 탈코르셋의 서사가 변치 않는 시간으로 박제된 ‘선언의 순간’에 집중하는 성격으로 인해 다양하고 다층적인 몸들의 위치, 각기 다른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강요와 타협, 협상과 실천들을 운동의 과정으로서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한다.<sup>15)</sup> 2018년 이후 ‘무엇이 탈코인가’를 두고 벌어진 몇 차례의 격렬한 논쟁은 바로 무엇이 여성을 억압하는 여성성 규범인가, 이 규범으로부터 탈(脫) 하고자 자는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에 대한 전장이기도 했다. 탈코르셋 운동이 4B(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 운동으로 연결,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애자, 비장애인, 생물학적 여성으로 이 운동의 주체가 전제된 것은 아닌지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의 단일한 억압과 차별을 경험을 전제하거나 여성-페미니스트 의식화를 과정이자 단계로 상정하기보다, 어떤 경험이 여성/페미니스트의 의식을 구성하게 되는지 성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애써 밝히고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 주체들의 도전과 갈등이 페미니즘 정치의 확장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장애여성 운동의 경험과 이론화 작업은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에게 오래된 문제의식을 새롭게 던진다. 급진을 포함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고정된 여성성을 강요하는 가부장제가 여성 착취와 소외의 근원이라고 보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여성의 몸에 대한 ‘이상화’(여성들의 몸은 강하다, 여성들 스스로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함으로써 실제로 약하고, 통증이나 장애로 고통을 경험하고, 통제할 수 없는 몸을 비가시화하기도 했다는 것이 장애여성이 도전했던 ‘페미니즘’이었다. 몸이 주는 힘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흐름(이는 장애/비장애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여성주의적 목표이기도 하다)은 개인의 통제권으로 연결되면서 질병, 노화, 장애 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다른 위치, 정체성, 몸의 경험을 살펴보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sup>16)</sup>

14) 이민경, 2019,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한겨레출판사.

15) 송유진, “‘탈코르셋’과 이분화된 몸의 서사: 더 많은 몸들에 대한 상상을 위하여”,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2019년 5월 15일자.

16) 수전 웬델은 바르키나 수전 보르도와 같은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문제를 장애여성의 위치에서 비판하고 분석한다. 수전 웬델, 강진경, 김은정, 황지성 역, 2013, 『거부당한 몸 :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문화’의 한계만이 아닌 ‘몸’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코르셋을 관습이자 문화이자 억압의 구조로 이야기해 온 비장애 여성들의 경험과 인식을(‘몸은 바로 문화의 텍스트다’, ‘문화의 힘이 세다’)을 상대화했다.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차별’을 상대화했고, 이를 통해 비장애여성도 차별의 구조 속에 위치한 자신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전이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코르셋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선망’했던 비장애여성의 억압 경험과 사회적 제도와 인식을 통해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경험했던 장애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무엇 때문에 다른지,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가부장제 사회에 놓인 ‘여성 공통의 경험’인지를 이야기해왔던 운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둬여’나 ‘보듬보’가 아니라, 각각의 여성들이 넘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매애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이다.

탈코르셋의 규범이 페미니스트 의식이자 실천/행동으로서 규범화될 때, 어떤 순간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 정체화 하는 과정에만 집중될 수 있다. 혹은 내가 스스로를 다른 여성과 구별짓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어떤 운동의 계보에 내 운동을 갖다 댈 것인지, 그 운동의 ‘어떤’ 지향과 ‘어떤’ 이유로 단절 혹은 구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놓칠 수 있다. 이는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타인의 고통과 외로움을 기반으로 특정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흐를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든 선언은 일시적 전략이지 목표가 아닙니다.<sup>17)</sup>

여성의 경험을 논란의 여지없는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특정한 경험이 특정한 정치적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페미니스트가 되게 하는 경험은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위치지어진 경험이다. 정치적 주체가 되는 과정은 각자가 놓인 조건과 살아온 역사에 따라 다르다. 즉 여성이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경험 그 자체가 같아서가 아니라 경험을 해석하는 정치적 지향이 공유되기 때문이다.<sup>18)</sup>

여성의 몸이 ‘여성’ 혹은 페미니즘의 핵심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조건은 신체 구조나 염색체가 같이 때문이 아니다. 바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들’의 몸에 부여하고 강제하는 사회적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규범이 어떤 권력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는 각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효과를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반차별의 이름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성성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남성은 ‘배신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모욕과 빈곤에 덧씌워진 모욕 사이에 있는 여성도, 학교에서의 복장 규제와 노동시장의 여성차별 사이에서 10대 청소년도 자신의 경험과 탈코르셋 운동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페미니즘’은 어떤 페미니즘인가? 혼자서는 이 답을 찾아갈 수 없다. “여성혐오는 누가 ‘진짜’ 여성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는다”<sup>19)</sup> 혐오의 정치가 드리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탈코 페미의 투블럭, 성소수자의 가방에 달린 무지개 배지, 3.8 여성의날 거리를 가득 채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끼, 무대에 선 누군가의 세월호 노란 팔찌를 떠올린다. 당사자성을 고민하면서도 연대를 고민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편견과 차별을 열어놓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동료들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이 고민을 나누고 싶다.

17) 정희진, “페미니스트”, 한겨레 [토요판] 정희진의 어떤 메모, 2015년 8월 21일자.

18) 전희경, 2008, 『오빠는 필요없다: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19) Katelyn Burns, “트랜스 여성을 ‘진짜 여성성’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허핑턴포스트, 2017년 11월 13일자.